나무에게서 배우는 '나 다운 인생'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유영만 지음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사는 나무는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의 생태숲 길을 탐방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무를 '나무(裸務)'라 칭하는 이가 있다. '나무(裸務)'는 '누구도 착취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한양대 교수에게 나무는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다.

유 교수가 최근에 펴낸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는 인간의 영원한 스승인 나무에게 배우는 지혜가 담겨 있다. 저자는 자기가 뿌리 내린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사는 나무에게 삶의 본질과 살아가는 방식을 묻는다.

"정상에 있는 나무는 자세를 낮추고, 산 중턱에 있는 나무는 중용의 미덕을 지키며, 산 밑에 있는 나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야 자란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상에 있는 나무는 키가 너무 크면 어느 순간 몰아치는 비바람에 부러질 수 있음을 터득했으며, 산 중턱에 있는 나무는 비탈길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했으며, 산 밑에서 자라는 나무는 치열하게 자신의 키를 키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실 나무는 늘 곁에 있지만, 우리는 나무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무는 무엇에 종속되거나 모방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인간과 달리 맨몸으로 세상과 마주한다.

"나무에게 맡겨진 소중한 의무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무도 본분을 다하기 위해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치열한 생명체다."

또한 저자는 나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춤을 추며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한 자리에 붙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을 춘다는 것이다. 나무가 '나무(裸舞)'인 까닭에 대해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멈춤'은 깊은 성찰의 시간이며, '낮춤'은 겸손을 표현하는 자세이자 포용의 태도다. '갖춤'은 춤의 기교를 익히기 전 갖춰야 할 자질을 일컫는다. 나아가 상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맞춤'이 있고 세상을 끌어안고 우주와 소통하는 혼연일체의 '막춤'이 있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삶의 근본을 배우기 위한 나무의 아홉가지 특성이 소개돼 있다. 주어진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무, 기다림의 철학을 실천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나무, 버려야 버림받지 않는 나무의 철학을 배운다.

2부에서는 나무를 구성하는 뿌리, 씨앗, 줄기, 가지, 옹이, 나이테, 단풍, 겨울눈, 그리고 해거리를 통해 살아가는 나무의 원리와 존재 이유를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열두 가지 나무를 토대로 소중한 인생 교훈을 찾아본다.

그 가운데 주목나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음 100년은 성장이 더디지만 이후로는 생장이 빨라진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 가는 주목나무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등나무를 통해서는 등지지 않고 등 대고 살아가는 노하우를 들려준다. 저자는 "등나무는 자신의 몸으로 뙤약볕을 정면으로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등신"이라며 "세상은 등신처럼 살아야 등 돌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등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무생각·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인들은 왜 욕먹으면서도 야스쿠니 참배할까

일본적 마음

김응교 지음

일본인의 생활 방식 중 하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이 자기 문화 속에 들어왔을 때 '숙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일본은 숙명을 배척하기보다는 꺼내놓고 익숙해지려 한다. 일본인들의 이런 특성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일본에서 13년 동안 살았던 김응교 문학평론가가 펴낸 '일본적 마음'은 일본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관찰하고 연구한 인문여행 에세이다.

저자는 예술, 독서, 사무라이, 야스쿠니 등 4개의 장을 통해 일본인이나 우리가 보지 못한 일본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가 분석한 일본인의 특성은 '체념', '집단주의', '부끄러움과 수치', '죽음'의 문화 등으로 대변된다.

일본 사람들은 눈부시게 만개한 벚꽃을 보면서도 죽음을 생각한다. 저자는 죽음의 문화를 공고히 한 건 사무라이 문화라고 말한다. 사무라이 문화, 곧 칼의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곳곳에 스며 있다. '잇쇼켄메이(一生縣命)'라는 말은 한국말로 의역하면 '열심히'라는 뜻이다. 잇쇼켄메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의미가 됐다.

죽음의 문화는 1869년에 세워진 야스쿠니 신사에 이르러 정점을 차지한다.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들부터 2차대전 때 죽은 250여만 명의 혼백이 신으로 모셔진 곳으로 죽어서 신이 된다는 명예 앞에 전쟁에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

'배를 주릴망정 명예에 죽고 사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사무라이들의 삶은 부끄러움보다는 죽음을 택했던 수치의 문화와도 연관이 되며 일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스마마셍'은 일본인의 부끄러움의 미학을 대변하는 일상적인 용어다.

저자는 또 '즐기고 노는 것 같지만 이탈을 막으려는 은밀한 결속의 끈을 조이고 있는 마을축제 마쓰리를 통해 일본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특성인 집단주의를 살펴본다.

그밖에 문학평론가인 저자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을 '치유와 단독자, 힐링의 문학'이라 평하고 있으며 하이쿠의 대가 마쓰오 바쇼, 근대 일본 사회의 풍속화인 우키요에 대가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작품 등을 통해서도 일본적 마음을 들여다 본다.

〈책읽는 고양이·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이 책은 보도지침 폭로(1986) 30주년을 맞아 언론통제의 검은 역사를 기록한 이 시대의 고발이자 증언이다. '보도지침' 초판(1988)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보도지침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록만 담고 있어 보도지침 사건을 온전히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그 이후 8년여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교활하고 정교하며 구조화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까지 적나라하게 들려준다. 〈두레·3만원〉

▲**달빛미소**=달을 좇는 몽상가, 뱃사람 폴. 그의 일생에 걸쳐 펼쳐진 모험과 도전,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폴은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 감성과 낙관주의로 가득 찬 이 작품은 화자의 삶에 리듬을 부여하는 달의 주기에 따라 프랑스에서 독일, 스페인을 거쳐 아르헨티나까지 우리를 1930년대에서 지금 현재의 시간 속으로 데려간다. 소설은 뱃사람을 꿈꾸는 몽상가 폴이 자신이 꿈꿔왔던 세계를 이뤄내고야 마는 기적을 그리고 있다. 〈무소의뿔·1만4000원〉

▲**상처받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심리 치유**='포커싱'이란 작은 불안이나 초조, 분노, 서투름, 혐오감 같은 감정을 '몸의 감각'으로 느끼며 그 정체를 찾아가는 심리 요법이다. 이 책은 포커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언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포커싱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도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치유법이다. 포커싱하는 법을 익히면 자신이 가진 많은 문제에 대해 몸이 나름의 해답을 알려 준다. 그 과정이 변화를 이끌어 낸다. 〈팬덤북스·1만5000원〉

▲**노자의 인생강의**=저자 신정근 교수는 노자 사상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롭게 읽으며 지금 여기의 삶을 돌아본다. 道(도), 無爲(무위), 自然(자연) 등 노자 사상을 관통하는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고, 이 개념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각자 살길을 찾기 바쁜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휴머니스트·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뭉치와 만도 씨**=건물 옥상에 제멋대로 둥지를 튼 비둘기, 먹이를 찾아 도시까지 내려온 멧돼지, 인간과 함께 사는 반려견 등 다양한 동물들과 사람들이 벌이는 소동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작가는 하루하루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는 생명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본다. 동물과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주제 의식이 마음에 오래 남는 작품이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 독자들은 도시에서 유해 동물 취급을 받는 비둘기나, 흔히 보는 개도 모두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창비·9800원〉

▲**멋진 천문학 이야기**=인류는 5000년 전 밤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천문학이 만들어졌다.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체 도구의 발명을 시작으로 미지의 우주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을 발명하기까지 인류가 이루어낸 업적, 그리고 무려 45억 년 전 탄생한 태양계에 속한 다양한 행성 이야기까지 천문학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지, 우주 공간에 외계 생명체가 정말 있을지, 살아 있는 동안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지 등 천문학의 세계를 탐험해보자. 〈그린북·1만2000원〉

▲**그냥 놀았어**='그냥 놀았어'는 말이 서툰 아이가 엄마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톡톡 튀는 그림으로 보여 주는 그림책이다. 그림에는 유치원 일상과 함께 아이와 엄마가 찾아내면 웃음이 터지는 부분도 곳곳에 숨어 있다. 표지를 넘기면 나타나는 아이 가방 속 물건들을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 찾기를 시작하면 더욱 즐거운 책읽기가 될 것이다. 〈바람의아이들·1만2000원〉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미군기지 이전)
LG전자 – 110만평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대신경매

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 45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5억6천

2)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토지 619평 건물 2116평
구시청 사거리 1분
감정가 88억 → 최저가 62억

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

4) 상무지구 (아파트상가)
토지 30평 건물 35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3천6백

5)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6) 첨단지구 아파트상가 (3층중 3층)
토지 20평 건물38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7) 광산구 신가동 (대방 아파트)
25층중 23층 (25평)
감정가 3억7백 → 최저가 2억1천5백

8) 상무지구 (갤러리아파트)
15층중 11층 (53평)
감정가 5억6천 → 최저가 4억5천

9) 경기도 평택시 (주택)
토지 79평 건물 38평
송탄역 3분
감정가 5억9천 → 최저가 2억9천

10)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4억6천

11)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6억

12)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